

성인 여성의 체형별 연령층별 상의 치수 체계

정 명 숙

한경대학교 가정학과

Classification of Sizing System for Women's Upper Clothes According to Body Type and Age Group

Myong-Sook Chung

Dept. of Home Economics, Hankyong University

(1999. 11. 15 접수)

Abstract

This paper proposed the sizing system for women's upper clothes in order to improve clothing fitness and raise the productivity. The sizing system was classified according to 5 body types and 5 age groups.

The size intervals of the basic dimensions were established at regular intervals centering around their means. The size interval of stature was 8cm centering around 158cm and that of bust girth 4cm centering around 84cm and that of hip girth 4cm centering around 92cm.

Frequency distribution on the size of upper clothe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 sizes were 96-96-150 in the longest-fattest type, 88-96-158 in the long-fatter type, 84-92-158 in the medium length-fat type, 84-92-166 in the short-balanced type, and 76-88-158 and 80-88-158 in the medium length-balanced type. The number of the sizes of upper clothes, which had frequencies more than 5%, was 32 and each size was presented with waist girth, back waist length, and sleeve length.

The size system classified by age group had 22 cases in the early twenties, 15 cases in the late twenties, 21 cases in the early thirties, 19 cases in the late thirties, and 15 cases in the forties.

Key words: sizing system, size of upper clothes, size interval, body type, age group;

치수 체계, 상의 치수, 치수 간격, 체형, 연령층

I. 서론

의복은 매일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인체에 착용되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여러 산업제품들 중에

서 인체의 형태적합성이 가장 높게 요구되는 제품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1979년이래 4차례에 걸쳐 국민표준체위조사를 실시하고 그 때마다 의류 치수 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의류학계에서도 기성복의 적합성 및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옷을 만드는 의류산업체에서는 각자의 브랜드에서 독자적인 치수 체계를 설정하고 있는

* 본 연구는 한경대학교 1999년도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립기술품질원에서는 국내 의류 치수 체계의 합리적 제정과 더불어 제정된 치수의 국제적 치수 체계와의 호환성을 강조하며 1998년에 체형별 의류 치수 체계를 제시하였다¹²⁾. 이 치수 체계는 1990년에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인 드롭치에 의해 개장된 치수 체계³⁾와 연장선상의 연구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드롭치의 차이에 따라 체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키 그룹마다 드롭치의 기준이 다르고 같은 키 그룹 내에서도 체형구분을 위한 드롭치 구간이 겹쳐져 있어서 체형에 따른 의류 치수 체계 설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합리적 체형분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된 치수 분류표를 보면 각 체형의 특징에서 벗어나는 치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체형구분별 치수 분류는 N형이 39개, A형이 31개, H형이 30개로 총 100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의류산업체의 생산 편리성과 작업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분류된 치수의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의류학계의 여성복 치수를 위한 최근의 연구로 임영자·이형숙⁴⁾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ISO 치수 체계에 맞추어 25개 치수를 제시하였으며, 최유경·이순원⁵⁾이 성인 여성의 정면 4개 체형별로 상의 37개 치수, 하의 36개 치수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체형에 따른 치수 체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연령층별 치수 체계의 확립이라고 생각한다. 연령층별로 필요한 치수와 함께 각 치수들의 수요가 파악된다면, 목표집단으로 하는 연령층의 옷을 생산할 때 형태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 감각의 옷을 원하는 다른 연령층의 치수도 함께 생산함으로써 의류제품의 시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명숙·이순원의 여성 상반신 체형분류⁶⁾를 기초로 체형에 따른 치수 체계의 제시와 함께 연령층별 치수를 분석하여 소비자에게는 의복 치수 만족도를 높이고 의류산업체에는 생산 효율성과 시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치수 체계 설정을 위한 체형

체형별 치수 체계 설정을 위해 사용된 체형은 선행 연구⁶⁾에서 분류된 여성 상반신 5가지 유형이며, <표 1>에 각 유형의 신체치수를 제시하였다. 체형 분류를 위하여 사용한 자료는 18~49세 여성 343명에 대하여 1992년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인체측정자료이다.

2. 기본 부위의 치수 간격 결정

치수 구간과 간격은 국내의 치수 체계를 참고로 하고 전체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5가지 체형에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 등의 의류 치수 체계에서 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치수 간격의 경향을 파악하고, 5가지 체형의 전체 평균값인 키 158cm, 가슴둘레 84cm, 엉덩이둘레 92cm를 중심으로 치수 간격을 결정하였다.

3. 체형별 치수 체계 설정

결정된 치수 간격에 대해 체형별 치수 빈도를 분석하고 각 체형별로 5%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치수를 선택하여 치수 분류표를 만들었다.

4. 연령층별 치수 체계 분류

체형별 치수를 연령층별로 분석하여 연령층별로 필요한 체형별 치수와 그 필요량을 파악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치수 설정을 위한 상반신 체형 고찰

체형별로 기성복 치수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인 체형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수직크기요소와 수평크기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체형이 분류되어야 함은 체형별 치수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조건이다. 만약 수직크기요소와 수평크기요소 중 어느 한쪽이 크게 작용하여 체형이 분류되고 그 체형들에 따라 치수 규격이 결정되었을 때는 설정된

<표 1> 상반신 체형별 신체치수 평균과 표준편차

(단위: cm)

신체항목	체형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44명)		길고 비만형(56명)		보통길이 비만형(55명)		짧고 균형형(105명)		보통길이 균형형(83명)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본부위	키	154.8	4.3	159.1	3.1	152.8	4.3	162.7	3.1	154.7	3.5
	가슴둘레	97.6	4.5	89.9	3.8	84.6	3.2	81.0	4.1	78.0	3.3
	엉덩이둘레	98.7	4.9	95.2	3.3	91.2	3.0	91.0	3.5	86.6	2.8
참고부위	허리둘레	86.3	5.8	76.5	3.5	71.4	3.6	65.8	3.7	63.5	3.4
	등길이	40.6	2.3	40.4	1.7	38.0	1.8	38.9	1.8	38.3	1.8
	소매길이	51.8	2.5	52.7	2.2	50.2	1.7	53.7	1.9	50.8	1.9
	몸무게	63.5	6.4	58.8	5.4	51.5	3.3	52.7	4.5	46.2	3.5
	드롭	1.0	4.6	5.3	5.3	6.6	3.8	10.0	3.8	8.5	3.3
	목뒤높이	131.4	3.9	134.6	2.9	128.5	3.5	137.7	3.0	130.4	2.9
	뒤허리높이	92.7	3.3	95.7	2.6	91.8	3.0	99.9	3.5	93.5	3.2
	키에 대한 상반신길이의 비율	25.0%		24.5%		24.0%		23.2%		23.9%	

치수 체계의 커버율이 낮아지게 된다. 즉 실제로 높은 빈도를 보일 수 있는 치수 규격이 치수 체계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⁶⁾에서 수직크기와 수평크기에 의해 분류된 5개의 상반신 유형을 사용하여 치수 체계를 설정하였다.

치수 설정을 위한 기본부위 항목인 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항목과 참고부위 항목인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목뒤높이, 뒤허리높이 항목 및 키에 대한 상반신길이의 비율, 드롭 등에 대한 5가지 체형의 평균과 편차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유형1은 키가 작고 가장 뚱뚱한 체형으로 키에 비해 목에서 허리까지 길이가 길고 어깨가 솟은 체형이다. 유형2는 보통 키에 유형1보다는 덜 비만하지만 좀 뚱뚱한 체형이다. 또 키에 대한 상반신길이의 비가 유형1보다는 작지만 유형3, 유형4, 유형5보다는 커 키에 비해 목에서 허리까지 길이가 긴 유형이다. 유형3은 키가 가장 작고 살이 썩 정도는 5가지 체형 중 중정도이며 키에 대한 상반신길이의 비도 5가지 체형 중 중정도이다. 유형4는 키가 가장 크고 유형1, 유형2, 유형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이지만 Röhrer 지수에 의하면 보통형에 속한다. 또한 키에 비해 목에서 허리까지 길이가 짧은 형이며 어깨가

벌어진 특징을 가진다. 유형5는 키가 작고 역시 유형1, 유형2, 유형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이지만 Röhrer 지수에 의하면 보통형이다. 키에 대한 상반신길이의 비율은 유형3과 비슷한 값을 가져 상반신길이가 5가지 체형 중 중정도임을 알 수 있다. 유형4와 유형5는 선행연구⁶⁾에서 Sheldon의 기술유형 중 균형형으로 분류된 바 있다.

따라서 유형1은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 유형2는 길고 비만형, 유형3은 보통길이 비만형, 유형4는 짧고 균형형, 유형5는 보통길이 균형형으로 명명하였다.

또 각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의 드롭치 평균으로 5가지 유형이 ISO 성인 여성 체형분류⁷⁾ 중 어떤 체형과 비슷한 지를 보면 유형1은 드롭 평균이 1.0으로 H형(small hip)에 가깝고 유형2와 유형3의 드롭 평균은 5.3, 6.6으로 M형(medium hip), 유형4와 유형5의 드롭평균은 10.0, 8.5로 A형(large hip)에 가깝다. 물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체형은 드롭에 의해 분류된 것이 아니라 신체 여러 부위의 수직크기 항목과 수평크기 항목에 의해 분류된 것이기 때문에 각 체형에 속하는 사례들이 드롭 평균에 의한 체형과 모두 같지는 않다. 이것은 최유경·이순원⁸⁾이 정면체형을 분류하고 그 체형들의 드롭분포를 보았을

〈표 2〉 여러 나라의 여성복 치수 간격

(단위: cm)

항목 \ 나라	독일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영국	일본	KS
키 간격	8	8	8	8	10	8	5
가슴둘레 간격	4, 6	4, 6	4, 6	4, 6	4, 5	3, 4	3
엉덩이둘레 간격	3, 4, 5	3, 4, 5	3, 4, 5	4	4, 5	2	2

때 4개 정면유형 모두 드롭 12~0cm내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각 유형이 서로 다른 특정구간에만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2. 치수 간격의 설정

여성복 상의 치수 체계를 위한 신체 기본부위로 는 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항목의 치수 간격을 설정하기에 앞서 국내의 여성복 치수 체계에서 치수 간격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ISO 치수 체계에 기초를 두고 키를 160cm, 168cm, 176cm로 분류하여 그 간격을 8cm로 하였으며, 가슴둘레의 치수 간격은 80cm에서 104cm까지는 4cm로 하고 104cm에서 116cm까지는 6cm 간격으로 하였다. 엉덩이둘레는 3cm 또는 4cm, 5cm 간격으로 치수 체계를 개발하였다. 덴마크와 핀란드도 독일과 거의 비슷한 치수 체계와 치수 간격을 가진다. 프랑스는 키를 152cm, 160cm, 168cm로 분류하여 그 간격은 8cm이며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 간격은 4cm로 설정하고 있다. 가슴둘레는 독일, 덴마크,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104cm에서 116cm까지는 6cm간격을 두고 있다. 영국은 키의 치수 간격을 10cm,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 간격을 4cm 또는 5cm로 설정하고 있다⁴⁸⁾.

일본의 경우에는 키를 142cm, 150cm, 158cm, 166cm의 4그룹으로 분류하여 그 간격을 8cm로 두고 있으며, 가슴둘레는 3cm 또는 4cm의 간격을 두고 있다. 그러나 엉덩이둘레는 2cm 간격으로 설정함으로써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 매우 세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⁹⁾.

KS 여성복 치수 규격은 피트성을 요구하는 상의인 경우 키를 5cm 간격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가슴둘레는 3cm 간격을 두고 있다. 엉덩이둘레는 일

본과 마찬가지로 2cm 간격으로 세분화하고 있다⁵⁰⁾. 제4차 국민표준체위조사 결과 내용은 의류제품의 체형별 표준화 방안에서도 KS 치수 규격과 마찬가지로 키 5cm 간격, 가슴둘레 3cm 간격, 엉덩이둘레 2cm 간격으로 치수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즉 다른 나라들보다 키와 엉덩이둘레의 치수 간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치수 체계 내에 더 많은 치수 규격이 포함되고 따라서 의복의 치수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의류산업체에서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너무 많은 치수 규격의 제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의류학계에서 제안한 치수 체계 중에서 임영자·이형숙⁴¹⁾이 제시한 치수 체계를 보면 키는 8cm 간격, 가슴둘레는 4cm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엉덩이둘레의 간격은 같은 키 그룹에서 2cm 또는 3cm, 4cm의 간격으로 제시되고 있다. 체형별, 키 그룹별로 엉덩이둘레 간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복생산자뿐만 아니라 의복구매자들이 의복 치수 체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최유경·이순원⁵¹⁾은 신체 기본부위의 체형별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치수 간격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키는 체형별로 4cm 또는 5cm의 간격을 가지며 엉덩이둘레도 체형별로 4cm 또는 5cm의 간격으로 설정되었다. 가슴둘레는 4가지 체형 모두에서 6cm 간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다른 치수 체계와 비교할 때 매우 넓게 설정되어 있다. 또한 치수 구간이 신체 기본부위의 체형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체형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또 의류산업체의 여성복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치수 체계를 보면,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 간격이 대부분 3cm, 4cm, 5cm로 설정되어 있다⁵²⁾.

본 연구에서는 의복생산자와 구매자가 의복 치수 체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형별 치수 구간과 치수 간격은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 점은 국내외 치수 체계의 일반적 경향이다. 또한 우리 나라 의류산업의 세계화를 대비할 때 국제적 치수 체계와 호환될 수 있는 치수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수 간격은 여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키는 전체 평균값 158cm를 중심으로 142cm에서 174cm까지 8cm 간격으로 설정하였고, 가슴둘레는 전체 평균값 84cm를 중심으로 72cm에서 112cm까지 4cm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엉덩이둘레는 전체 평균값 92cm를 중심으로 80cm에서 112cm까지 4cm 간격으로 설정하여 체형별 치수 빈도를 분석하였다.

3. 체형별 상의 치수 분류

여성 상반신 5개 유형에 대한 상의 치수 간격에 따른 빈도를 <표 3>에서 <표 7>까지 제시하였으며, 각 체형별로 5%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분포에 음영표시를 하였다.

<표 3>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의 상의 치수 빈도 분포

S\H	B*						합계
	92	96	100	104	108	112	
150	88	1		1			2
	92	1	1				2
	96	3	5				8(8)
	100		2	2			4
	104		1	2			3
158	92			1			1
	96		3	3			6(6)
	100	2	4	4			10(8)
	104				2		2
	108					1	1
166	112			1			2
	100					1	1
	104			2			2
합계	7(3)	16(12)	16(7)	2	1	2	44(22)

(* S: 키, B: 가슴둘레, H: 엉덩이둘레
합계의 () 안은 선정된 치수 빈도

<표 4> 길고 비만형의 상의 치수 빈도 분포

S\H	B*						합계
	80	84	88	92	96	100	
150	96				1		1
158	92		1	5	6	2	14(11)
	96	1	2	11	6	3	23(20)
	100		1		1	2	4
	112		1				1
166	92				2		2
	96			4	2		6(4)
	100			2		2	5
합계	1	5	22(20)	15(12)	12(3)	1	56(35)

(* S: 키, B: 가슴둘레, H: 엉덩이둘레
합계의 () 안은 선정된 치수 빈도

<표 5> 보통길이 비만형의 상의 치수 빈도 분포

S\H	B*					합계
	80	84	88	92	96	
142	88		2			2
	92		1	1		2
150	84		1			1
	88	5	5	2	1	13(10)
	92		3	1	1	6(3)
	96		1	3	1	5(3)
158	88		2	1		3
	92	2	10	3		15(13)
	96		4	3		7(7)
	100		1			1
합계	7(5)	30(22)	14(9)	3	1	55(36)

(* S: 키, B: 가슴둘레, H: 엉덩이둘레
합계의 () 안은 선정된 치수 빈도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의 상의 치수 빈도 분포를 보면 가슴둘레 96cm, 엉덩이둘레 96cm, 키 150cm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96-100-158(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 순서로 치수표시), 100-100-158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92-96-150, 96-96-158, 100-96-158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길고 비만형은 88-96-158에서 아주 높은 빈도를 보인다. 다음으로 92-92-158과 92-96-158, 88-92-158, 88-96-166, 96-96-158 순으로 빈도 분포

〈표 6〉 짧고 균형형의 상의 치수 빈도 분포

S* \ H*	B*						합계
	72	76	80	84	88	92	
158	84		2				2
	88		6	8	2	2	18(14)
	92		2	4	8	3	17(8)
	96		1	2	2	1	6
166	84		2	1			3
	88	2	4	6			12(6)
	92	1	3	7	12	2	26(19)
	96			4	9	2	15(9)
	100				1	1	3
174	88			2			2
	92		1				1
합계	3	19(6)	36(21)	34(29)	11	2	105(56)

(*) S: 키, B: 가슴둘레, H: 엉덩이둘레
 합계의 () 안은 선정된 치수 빈도

〈표 7〉 보통길이 균형형의 상의 치수 빈도 분포

S* \ H*	B*						합계
	72	76	80	84	88		
142	80		1				1
150	80	1	1				2
	84	1	4	4			9
	88	1	1	8	1	1	12(8)
	92			3	1		4
158	80		1				1
	84	1	6	3			10(6)
	88	2	13	12	8		35(33)
	92		1	4	2		7
	96			1			1
166	84	1					1
합계	7	28(19)	35(20)	12(8)	1		83(47)

(*) S: 키, B: 가슴둘레, H: 엉덩이둘레
 합계의 () 안은 선정된 치수 빈도

를 보인다.

보통길이 비만형은 84-92-158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80-88-150과 84-88-150, 84-96-158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내며, 84-92-150, 88-96-150, 88-92-158, 88-96-158도 5% 이상의 빈도를 보인다.

짧고 균형형은 84-92-166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84-96-166, 80-88-158과 84-92-158, 80-92-166, 76-88-158과 80-88-166의 순으로 빈도 분포를 보인다.

보통길이 균형형은 76-88-158과 80-88-158에서 높은 빈도를 보이며, 80-88-150과 84-88-158, 76-84-158의 순으로 빈도를 나타낸다.

〈표 8〉 체형별 상의 치수 분류

(단위 : cm)

체형	기본치수		참고치수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이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	92-96-150	83.8	39.3	50.0	
	96-96-150	84.9	39.9	51.0	
	96-96-158	83.1	42.7	50.6	
	96-100-158	82.6	41.5	53.6	
	100-96-158	85.8	40.6	53.3	
가장 길고 비만형	100-100-158	86.3	40.9	53.2	
	88-92-158	74.4	38.9	52.2	
	88-96-158	77.2	40.6	53.1	
	88-96-166	73.3	40.1	52.5	
	92-92-158	77.0	39.8	51.8	
보통길이 비만형	92-96-158	74.8	39.6	52.6	
	96-96-158	80.1	40.0	51.9	
	80-88-150	68.9	38.0	50.2	
	84-88-150	70.7	37.6	49.5	
	84-92-150	68.3	39.1	49.7	
보통길이 비만형	84-92-158	70.6	38.3	51.4	
	84-96-158	71.8	39.1	51.0	
	88-92-158	72.3	36.7	50.0	
	88-96-150	75.8	38.6	49.0	
	88-96-158	70.3	39.6	50.8	
짧고 균형형	76-88-158	60.9	36.3	52.9	
	80-88-158	63.9	38.2	52.6	
	80-88-166	64.3	39.5	53.9	
	80-92-166	65.8	39.2	54.4	
	84-92-158	68.3	38.9	52.1	
	84-92-166	66.5	39.7	54.4	
보통길이 균형형	84-96-166	67.3	39.4	53.4	
	76-84-158	60.2	38.2	51.3	
	76-88-158	62.3	38.7	51.5	
	80-88-150	64.8	38.4	49.5	
	80-88-158	65.5	37.8	51.9	
	84-88-158	67.0	39.1	51.2	

〈표 9〉 연령층별 상의 치수 출현율

(단위: %)

체형	연령층 치수	연령층				
		18~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9세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	92-96-150			2.8		8.7
	96-96-150			8.3	2.6	4.3
	96-96-158					13.0
	96-100-158			2.8	5.3	4.3
	100-96-158				2.6	8.7
	100-100-158			2.8	2.6	8.7
길고 비만형	88-92-158	1.4		5.6	2.6	4.3
	88-96-158	2.7	4.0	5.6	10.5	8.7
	88-96-166	1.4	4.0	5.6		
	92-92-158		4.0		10.5	4.3
	92-96-158	2.7		2.8	2.6	8.7
	96-96-158	1.4			2.6	4.3
보통길이 비만형	80-88-150				7.9	8.7
	84-88-150			5.6	5.3	4.3
	84-92-150	1.4			5.3	
	84-92-158	1.4	4.0	8.3	10.5	4.3
	84-96-158	1.4		2.8	5.3	
	88-92-158	1.4			5.3	
	88-96-150		4.0	2.8	2.6	
	88-96-158	1.4		2.8		4.3
짧고 균형형	76-88-158	6.8		2.8		
	80-88-158	8.1	8.0			
	80-88-166	6.8	4.0			
	80-92-166	6.8	4.0	2.8		
	84-92-158	8.1		5.6		
	84-92-166	12.2	12.0			
	84-96-166	8.1	12.0			
보통길이 균형형	76-84-158	5.4	4.0	2.8		
	76-88-158	10.8	12.0	2.8	2.6	
	80-88-150	4.1	4.0	2.8	7.9	
	80-88-158	5.4	8.0	11.1	5.3	
	84-88-158	1.4	12.0	11.1		

각 체형별로 5% 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치수를 선택하여 참고치수와 함께 <표 8>에 정리하였다. 참고치수인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이는 각 체형의 그 치수에 해당하는 사례들의 평균치이다. <표 8>에서 치수 96-96-158, 88-92-158, 88-96-158, 80-88-150, 84-92-158, 76-88-158, 80-88-158은 두 가지 체형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의 96-96-158 치수와 길고 비만형의 96-96-158 치수는 상의 제작에 필요한 참고치수인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치수로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7개 치수는 각각 다른 체형의 치수로 따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이 5% 이상 빈도에서 선택된 상의 치수

의 수는 32개이며 전체 연구대상의 57.1%를 포함한다.

4. 연령층별 상의 치수 분석

연령층별로 필요한 치수와 그 치수들의 필요량을 파악하여 의류를 생산한다면 소비자들은 신체적합성이 높은 의복을 선택할 기회가 커지고 의류산업체는 재고율을 줄이고 시장성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되기 때문에 앞에서 분류한 체형별 상의 치수를 연령층별로 분석하였다.

연령층은 20대 전반(18~24세), 20대 후반(25~29세), 30대 전반(30~34세), 30대 후반(35~39세), 40대(40~49세)의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연령층별 치수 출현율을 분석하였다.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대 전반부에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치수는 짧고 균형형의 84-92-166이며, 보통길이 균형형의 76-88-158이 두 번째로 높은 출현율을 보인다. 짧고 균형형과 보통길이 균형형의 치수에서 이 연령층의 84%에 이르는 출현율을 보인다. 또한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에서는 어떤 치수에서도 출현율을 보이지 않는다. 성인 여성 전체 상의 치수로 분류된 32개 치수 중에 22개의 치수에서 출현율을 나타낸다.

20대 후반부에서는 짧고 균형형의 84-92-166과 84-96-166, 보통길이 균형형의 76-88-158과 84-88-158에서 높은 출현율을 보인다. 20대 전반과 마찬가지로 짧고 균형형과 보통길이 균형형의 치수에서 집중적인 출현율을 보이며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의 치수에서는 출현율을 보이지 않는다. 이 연령층에서는 32개 치수 중에서 15개 치수에서만 출현율을 나타내고 있다.

30대 전반부는 5가지 체형의 치수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여 체형의 변화가 시작되는 연령층임을 입증하고 있다. 가장 높은 출현율을 나타내는 치수는 보통길이 균형형의 80-88-158과 84-88-158이며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의 치수에서도 높은 분포를 나타낸다. 이 연령층은 21개 치수에서 분포하고 있다.

30대 후반부는 길고 비만형의 88-96-158과 92-92-158, 보통길이 비만형의 84-92-158에서 높

은 출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대와 30대 전반부까지 출현율을 나타내던 짧고 균형형에서는 어떤 치수에서도 출현율을 보이지 않는다. 이 연령층은 19개 치수에서 분포를 보인다.

40대에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치수는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의 96-96-158이며, 40대 전체의 78%가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과 길고 비만형의 치수에 분포하고 있다. 이 연령층은 짧고 균형형의 치수뿐만 아니라 보통길이 균형형의 치수에서도 출현율을 보이지 않으며 15개의 치수에만 분포하고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5개의 여성 상반신 체형에 대하여 체형별 상의 치수를 분류하고 그 치수들을 연령층별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는 신체적합성이 향상된 의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의류산업체에는 제품의 생산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치수 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치수 구간과 치수 간격은 5가지 체형에서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키는 전체 평균값 158cm를 중심으로 8cm 간격으로 설정하였고, 가슴 둘레는 전체 평균값 84cm를 중심으로 4cm 간격으로 설정하였으며, 엉덩이둘레는 전체 평균값 92cm를 중심으로 4c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체형별 상의 치수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은 96-96-150, 길고 비만형은 88-96-158, 보통길이 비만형은 84-92-158, 짧고 균형형은 84-92-166, 보통길이 균형형은 76-88-158과 80-88-158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5% 이상 빈도를 보이는 상의 치수의 수는 32개이며, 이 치수들을 참고치수인 허리둘레, 등길이, 소매길리와 함께 체형별로 제시하여 의류산업체에서 의복 제작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체형별 상의 치수를 연령층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상의 치수로 분류된 32개 치수 중에서 20대 전반부는 22개 치수, 20대 후반부에서는 15개 치수, 30대 전반부는 21개 치수, 30대 후반부는 19개 치수, 40대에서는 15개 치수에서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연령층별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치수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20대에서는 짧고 균형형과 보통길이 균형형의 치수에서 집중적인 분포를 보였다. 체형의 변화가 시작되는 연령층인 30대 전반부에서는 5가지 체형의 치수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였으며, 30대 후반부에서는 길고 비만형과 보통길이 비만형의 치수에서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40대에서는 가장 길고 가장 비만형과 길고 비만형의 치수에 전체의 78%가 분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체형별·연령층별 의류 치수분류는 의류의 신체적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계획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효율적인 제품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국립기술품질원,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보고서, 1997.
- 2) 국립기술품질원, 국민표준체위 조사결과에 따른 체형 분류연구-의류제품의 체형별 표준화 방안 연구, 1998.
- 3) 공업진흥청, 의류제품의 호칭 및 치수규격 단순화 방안 연구, 1990.
- 4) 임영자·이형숙, "국내의 여성복 사이즈체계 비교 연구-20대 여성의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의의류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3), 391-401, 1999.
- 5) 최유경·이순원, "성인 여성의 장년 체형별 사이즈 스펙의 제안", 한국의류학회지, 23(4), 575-583, 1999.
- 6) 정명숙·이순원, "성인 여성 상반신 체형의 분류 및 연령층별 분포", 한국의류학회지, 21(3), 571-580, 1997.
- 7) ISO, Standard Sizing Systems for Clothes, ISO/TR 10652:1991(E), 1991.
- 8)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류치수 표준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 1997.
- 9) 日本規格協會, JIS L 4005, 1997.
- 10) 교학연구사, 피복구성학-이론편, 116-132, 1998.
- 11) 공업진흥청, KS K 0051, 1992.
- 12) 조영아, 패턴 그레이딩, 교학연구사, 205-232, 1999.